

日帝強占期 中國語 教材에서 나타나는 ‘時制’와 ‘相’에 관한 인식 연구*

申 美 燮**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일제강점기 시간범주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II. 문법 설명에서 나타난
‘시제’와 ‘상’의 인식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중국어의 시간 범주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인으로서 동태조사 ‘了’, ‘着’, ‘過’ 등이 함유하고 있는 시간적 의미나 동사의 중첩 형식 및 시간 부사 등이 내포하고 있는 문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관련한 문법적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많은 중국어 교육 종사자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했을까?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시간 범주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발행된 중국어 회화 교재에 나타나는 중국어의 ‘時制(tense)’와 ‘相(aspect)’에 대한 당시 저자들의 인식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5-A00639).

** 대구한의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고찰하는 것이다. 시제와 상은 중국어의 시간범주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법 개념으로 교재에서 나타나는 개념 고찰을 통해 당시 저자들이 중국어의 시간범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최근 발굴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로, 宋憲奭 저 《漢語獨學》(1911), 王運甫 저, 李源生 편집 《漢語大成》(1918), 宋憲奭 저 《支那語集成》(1921), 文世榮 저 《支那語大海》(1938) 등 4종의 교재이다. 이들 교재는 모두 朴在淵·金雅瑛 편(2009) 《漢語會話書》(學古房)에 수록되어 있다. 이 교재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 1930년대 사이에 한국에서 출간된 口語體 會話 교재로, 교재 안의 문법 설명을 통해 중국어의 시제나 상이 언급되어 있다.

교재의 저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려진 바가 없지만 《支那語大海》의 경우는 《조선어사전》을 편찬한 국어학자 靑嵐 文世榮이라는 점이 특이하고, 王運甫의 경우 중국 山東省 출신의 중국인으로 책 서문에 소개되어 있다. 이 교재들은 조선시대의 사역원과 같은 전문 역학 기구에서 출간한 자료들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당시 중국어는 아직 정식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교육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교재는 대부분 독학용으로 쓰였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중국어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혼자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제와 상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교재 속에서 어휘나 문법 설명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중국어 교재에서 본문 앞 혹은 뒤에 문법을 따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저자들은 중국어의 단어나 구를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시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經過事, 推量¹⁾, 完了 등의 어휘를 사

1) '推量'이라는 용어는 宋憲奭(1911)의 일본어 문법서 『中等日语法』와 중국어 교재 《漢語自在》, 일본어 교재 《增訂改版中等日语法》 등에도 나타나고 있고 기타 일본서적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국내 어학서에서는 高橋亨(1909)의 《韓語文典》과 박승빈(1931)의 《조선어강의요지》 등에서도 나타난다. '推

용해서 시제와는 다른 相 혹은 서법의 개념으로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당시의 중국어 시간 범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교재에서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시제와 상의 인식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중국어 본문을 구할자본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해석하고 있다. 문장의 맥락이나 한국어 해석을 통해 저자들이 시간과 관련된 어휘 혹은 구문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위주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두 번째 방법을 참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예문에 대한 한국어 해석은 모두 해당 교재에서 사용한 해석과 맞춤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대별로 맞춤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문에 대해 맞춤법이 다른 해석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한 별도로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근 100여 년 전 우리 선인들이 중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말과 체계가 다른 중국어의 시간 범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교재에 나타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중국어 학습과 교육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며, 근 100년 전 중국어 白話의 모습을 살펴보는 계기될 것이다.

II. 문법 설명에서 나타난 ‘시제’와 ‘상’의 인식

중국어의 시제나 상을 언급하고 있는 《漢語獨學》(1911), 《漢語大成》(1918), 《支那語集成》(1921), 《支那語大海》(1938)의 4종의 교재들은 모두 동사 용법 혹은 동사의 용례를 통해 동사의 시제를 구분하고 있다.

量’이란 ‘동작이나 사실을 미루어 생각함’을 나타내는 서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제선, 《국어학 발전사》, 서울고시사, 1987, 69쪽.

우선 《漢語獨學》에서는 第二十一課 <動詞用法>부분에서 동사를 現在, 過去, 經過事, 未來, 未來推量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제의 개념에다 약간의 상 혹은 서법의 개념을 덧붙였다고 할 수 있다. 《支那語大海》에서는 《漢語獨學》과 같이 動詞 用例를 현재, 미래, 미래추량, 과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漢語獨學》의 예와 같거나 유사한 예를 다루고 있다. 차이점은 《漢語獨學》에서는 經過事로 분류한 ‘過’를 《支那語大海》에서는 過去로 분류하고 있으며, 經過事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漢語大成》에서는 본문을 제시하고 본문 아래 해석 부분에서 개별 어휘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통해 약간의 시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漢語大成》에서의 시제 혹은 상의 개념은 매우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제 뿐 아니라 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저작은 《支那語集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第二十六課 第五 動詞의 活用 부분에서 ‘了’, ‘着’, ‘過’ 등의 어휘가 나타내는 시제 혹은 상의 개념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등 시제의 개념에다가 完了, 終止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동사의 시간 범주를 설명했다. 개별적인 어휘들이 교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는 아래와 같다.

1. ‘了’

‘了’의 문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한 교재는 《漢語獨學》, 《支那語集成》, 《漢語大成》, 《支那語大海》이다.

《漢語獨學》에서는 ‘과거’ 부분에 모두 ‘了’를 사용하는 구문을 제시했다²⁾.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他去了。 제가 갔다.³⁾

2) 박재연·김아영 편, 《漢語會話書》, 學古房, 2009, 11쪽.

- ② 他回家去了。 제가 집으로 도라갔다.
- ③ 月亮上來了。 달이 올라왔다.
- ④ 吃了飯了。 밥을 먹었다.

또 부록 색인에서는 ‘了’를 ‘과거 혹은 정확한 경우에 사용한다⁴⁾’는 설명을 하고 있어 저자가 ‘了’를 시제의 의미 이외에 양태의 범주로도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支那語大海》에서도 《漢語獨學》과 같이 과거 부분에서 ‘了’를 다루고 있고, 유사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단지 차이점은 과거부분에 조사 ‘過’가 쓰인 예가 포함된 점이다⁵⁾.

《支那語集成》에서는 第二十六章 動辭 第五 動辭의 活用부분에서 ‘了’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⁶⁾.

(一) 了 (完了와 終止의 意味를 包含하고 現在, 過去의 兩個 意味를 含有함.)

- ⑤ 來了 온다, 왔다
- ⑥ 去了 간다, 갔다
- ⑦ 走了 나간다, 나갔다
- ⑧ 下了雨了 비가 온다, 비가 왔다
- ⑨ 輸了 진다, 졌다

위 내용을 통해서 저자는 ‘了’를 단순히 시제의 범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의 범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完了와 終止로 나누는

3) 본문에는 ‘他去了[타취라] 제가 갔다’와 같이 발음을 표기하고 의미를 구할자로 쓰고 있다. 본문에서는 편의를 위해 발음부분은 빼고 다루기로 한다. 발음을 표기해야할 경우는 []를 사용한다.
 4) 본문에서는 ‘了[라] 過去又是 定確한 境遇에 用함이라.’로 되어 있다. 박재연·김아영 편, 《漢語會話書》, 學古房, 2009, 36쪽.
 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做過賣買 장사를 하였다, 到過奉天 봉천에 갔었다, 見過他一回 한 번 그를 만났었다. 같은 책, 592쪽.
 6) 같은 책, 352쪽.

것은 오늘날 ‘了’의 동작의 완성 혹은 문장의 완성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자의 인식이 오늘날의 인식처럼 구체적이지 않지만, ‘了’의 의미를 나눈 점은 저자 宋憲奭의 ‘了’에 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같은 저자지만 후에 출간된 《支那語集成》에서 ‘了’에 관한 이해가 前作인 《漢語獨學》에서 보다 더욱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심화는 단지 ‘了’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전작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了’를 형용사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동사로 품사가 전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好了, 亮了, 紅了를 제시하고 있다.⁷⁾ 이를 통해 저자는 ‘了’에 관한 인식도 다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漢語大成》에서는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了’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了’가 과거와 현재에 통용한다고 설명하고, 부정형식은 ‘沒’로 나타낸다⁸⁾고 설명하고 있어, 긍정의 형식 뿐 아니라 부정의 형식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2. ‘過’

《漢語獨學》에서는 經過事라는 용어를 써서 ‘過’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지냈던 일’, ‘했던 일’ 정도로 해석한다면 저자는 ‘過’를 분명히 ‘경험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⁹⁾.

- | | |
|-----------|--------------|
| ⑩ 到過京城。 | 경성에 갔었다. |
| ⑪ 做過賣買。 | 장사했었다. |
| ⑬ 見過他一回。 | 한 번 저를 만났었다. |
| ⑭ 當過一回教習。 | 한 번 教授 지냈었다. |

7) 같은 책, 350쪽.

8) 같은 책, 265쪽.

9) 같은 책, 11쪽.

《支那語大海》에서도 《漢語獨學》와 같은 예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過’를 모두 過去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가 다를 뿐 한국어 해석은 모두 선어말 어미 ‘-었었-’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저자의 인식이 《漢語獨學》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⁰⁾ 《支那語集成》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통해 ‘過’를 過去完了로 설명하며, 예문으로 ‘去過’, ‘來過’, ‘吃過’, ‘學過’, ‘聽見過’를 들고, 각각 ‘갓섯다’, ‘왓섯다’, ‘먹었섯다’, ‘배웠섯다’, ‘들었섯다’로 해석하고 있다. 역시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支那語集成》의 저자 송헌석이 집필한 일본어 교재 《中等日語法》에서도 完了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송헌석이 ‘過’를 經過事에서 過去完了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中等日語法》은 1911년 출판된 것으로 이미 이때 저자는 용어를 전환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대 한국어 시제 연구에 있어 선어말어미 ‘-었었-’ 등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해석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다.¹¹⁾ 그래서 이를 대과거 혹은 과거완료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교재의 ‘過’에 대한 이해는 문법적 설명 뿐 아니라, 이에 한국어 해석에서도 ‘過’를 ‘-었-/왔-/했-’으로 해석했던 ‘了’와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過’에 대한 일제강점기 교재 저자의 인식은 사실 매우 이르다고 할 수 있다. 萬波(1996)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법 연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중국어의 상에 대해 언급한 저작은 1924년 黎錦熙의 《新著國語文法》인데, 이 책에서는 ‘過’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즉 ‘過’의 相적 혹은 時制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過’에 대한 언급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1957년 張壽康의 《略論漢語構詞法》에 이르러서 비

10) 같은 책, 592쪽.

11) 김종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중국어 문법》, 박이정, 2008, 293-294쪽.

로소 ‘已行態’라는 용어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교재 저자, 특히 宋憲奭의 경우는 이미 1911년 출판된 교재 《漢語獨學》에서 經過事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過’의 경험상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의 연구 혹은 일어문법을 통해 유추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¹²⁾, 중국의 연구보다 더 먼저 중국어 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着’

‘着’의 경우는 대부분 現在로 인식하고 있다. 《漢語獨學》에서는 동사 용법을 통해 현재로 분류한 예문에 모두 ‘着’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으며, 《支那語集成》에서도 현재로 설명하고 있다. 《支那語大海》에서도 현재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⑮ 寫着字 글씨를 쓴다 看着書 글을 본다 《漢語獨學》(11쪽)
- ⑯ 站着 서있다 聽着 듣는다 坐着 안진다 《支那語集成》(392쪽)
- ⑰ 看着書 책을 본다 寫着字 글씨를 쓴다 走着去 걸어간다 《支那語大海》(591쪽)

저자들이 ‘着’을 현재로 이해한 것은 ‘着’이 가지고 있는 同時性和 非完全(imperfective)적 특징 때문으로 추측된다. 당시 문법적 이해는 서구 언어의 문법관이 지배적이었으므로 印歐語의 삼분법(과거, 현재, 미래) 시제구조에 따라 ‘着’을 현재로 이해하였다.

‘着’은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로 인해 여러 가지 문법적 설명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着’을 助詞로 설명하면서 모두 “~서” 혹은 “~면서”로 해석하는 것이다.¹³⁾ 또 다른 교재

12) 예를 들어 1912년(大正元年)에 東京에서 발행된 宮錦舒의 《支那語文典》(155쪽)에서는 ‘過’를 대과거로 나타내고 있다.

인 《中國語自通》(1939)에서는 ‘着’을 接續詞로 설명하면서 동사와 동사 사이에서 “~서, ~면서, ~고서”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설명은 모두 ‘着’의 전형적인 動態助詞적 특징을 설명하는 해석으로 모두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문에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보아도 지속의 의미 혹은 비완전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⑮ 我步行兒走着。 나는 보행으로 가오. 《支那語集成》(358쪽)
 ⑯ 我在这兒歇着哪。 나는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支那語大海》(600쪽)

4. ‘來着’

‘來着’의 경우는 《支那語集成》에서 過去로 다루고 있다. 第二十六課 第五 動詞의 活用부분을 통해 예를 들고 있다.¹⁵⁾ 다음과 같다.

- ⑳ 問來着。 물었다.
 ㉑ 走來着。 갔다.
 ㉒ 寫信來着。 편지 썼다.
 ㉓ 做甚麼來着? 무얼 해였다?

‘來着’의 경우 다른 교재의 문법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단지 《支那語集成》에서만 과거로 단정해서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전작인 《漢語

13) 《官話 華語教範》에서는 품사를 나누어 해당어휘를 설명하고 있는데, 조사 부분에서 ‘着’을 두어 ‘~서’, ‘~면서’로 해석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湊着零碎話散學的。 자질구려한 말을 모아서 산학이오.(216쪽), 咱們說着話兒喝酒。 우리 말하면서 술 먹읍시다. 박재연·김아영 편, 《漢語會話書》, 學古房, 2009, 219쪽.
 14) 金松圭 저, 박재연·김아영 교주, 《內鮮滿最速成 中國語自通》, 中韓翻譯研究所, 2010, 13쪽.
 15) 박재연·김아영 편, 앞의 책, 352쪽.

《獨學》에서 과거로 분류했던 ‘了’를 《支那語集成》에서는 完了와 終止의 의미를 포함하며, 현재와 과거의 두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過’를 過去完了로 한정했고 ‘來着’을 過去로 제시했다. 이는 저자 송현석이 시제와 상의 의미를 분리하여 인식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 사용된 ‘來着’의 경우는 다른 어휘와 달리 현재 사용되는 ‘來着’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陳前瑞(2005, 2006) 등은 ‘來着’가 주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來着’의 구문이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구문(시간의 범주)에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구문(양태의 범주)으로 발전했으며,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來着’는 화용기능을 가지게 되어 어기사로 지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현재의 ‘來着’의 경우는 시간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교재에서는 近過去의 의미가 두드러지고, 현재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완전상(perfect)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㉔ 你在那兒幹甚麼來着? 너는 거기서 무엇하고 있었니? 《支那語大海》(600쪽)

㉕ 我在門口站着來着, 我说大人没在家, 老爺们请到裡头坐罢, 他们不肯进来, 回去了. 내가 문 압헤 서서 말하기를 영감이 턱에 안게시다 하고 여러분 드려와서 안지시라 하였더니 이들이 질겨 드려오지 안코 갖습니다. 《漢語大成》(294쪽)

5. ‘要’

《漢語獨學》에서 ‘要’ 역시 第二十一課 動詞用法 부분에서 나타난다. 저자는 未來의 용법에서 ‘要’를 동사 앞에 사용하여 미래의 의미를 담고

1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2011)를 참고하기 바람. 졸고, <日帝强占期 中國語 教材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學》 57집, 2011.

있다고 설명했다. 《支那語大海》에서도 ‘要’를 사용한 예문을 未來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6 僂們要回去。 우리 도라 갑시다. 《漢語獨學》(11쪽)
 ②7 他明天要走。 저는 릿일 썸나갓다. 《漢語獨學》(11쪽)
 ②8 今天要下雨。 오늘 비가 오갓다. 《支那語大海》(592쪽)

그러나 《支那語集成》에서는 문법적인 설명에서 ‘要’를 삭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본문의 예문을 통해 ‘-겠-’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저자가 중국어 시제 혹은 상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시제에 대한 인식이 삼분법의 체계에서 과거와 현재의 이분법의 체계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어의 시제 연구에 있어서 최광옥(1908)이나 유길준(1909), 주시경(1910) 등 초기의 연구는 주류가 시제를 절대시만을 책정하고 이를 과거, 현재, 미래로 삼분체계였으나, 후에 와서는 사분체계나 이분체계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했고, 기준시를 따로 책정하는 이원적 체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렬모(1946) 등의 학자들은 미래 시제를 따로 상정하지 않는 이분체계를 주장하고 있다.¹⁷⁾ 《支那語集成》의 저자가 국어 교사를 역임하는 등 언어방면에 다양한 경력으로 보아 이러한 당시 한국의 조류를 수용하여 《支那語集成》에서는 중국어의 시제를 이분 체계로 나눈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사실 ‘要’ 뿐만 아니라 다른 시제 혹은 상 범주의 어휘들에 대해 《支那語集成》은 《漢語獨學》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要’를 더 이상 미래의 범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과감히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선영, <한국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시제’인식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9쪽 재인용.

6. ‘快要~了’

‘快要~了’는 《漢語獨學》, 《支那語大海》에서 未來推量이라고 분류되어 나타난다. ‘要’가 생략되거나 ‘了’가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他快要來。 저는 곧 오겠지. 《漢語獨學》
 ㉩ 風快走了。 바람은 곧 극치겠지. 《漢語獨學》
 ㉪ 時候兒快到了。 때가 곧 이르겠지. 《支那語大海》

미래추량¹⁸⁾은 미래 추측의 의미로, 저자는 해석을 통해서도 선어말 어미 ‘-겠-’과 종결어미 ‘-지’를 사용해서 추측 혹은 추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快要~了’ 역시 같은 宋憲奭의 저서 《支那語集成》에서는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要’와 같은 인식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추측된다.

7. 기타

‘可以’의 경우 《漢語獨學》¹⁹⁾, 《支那語大海》²⁰⁾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하여 ‘要’와 함께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晚上可以得。 밤에는 되겠다.
 ㉬ 回頭可以晴。 있다가 개겠다.

18) 박승빈은 미래시제가 ‘-겠습(개쓰)-’을 통해 실현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推量을 나타내는 예문으로 다음을 들었다. “나무가 컸으니까 올해는 열매가 열개썬요.” 박승빈, 《조선어학강의요지》, 조선어학연구회, 1931,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1977, 161쪽.

19) 박재연·김이영 편, 앞의 책, 12쪽.

20) 같은 책, 592쪽.

이는 아마도 可以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의미를 미래의 시제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V-V’ 형식의 경우는 《支那語集成》에서 동일한 동사 중간에 수사 ‘一’자를 넣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²¹⁾는 설명이 나타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③ 看一看 한 번 보다, 寫一寫 한 번 쓰다. 念一念 한 번 읽다

저자는 현재시제로 제시했지만 해석을 통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시험 삼아 시도하다’ 혹은 ‘잠시’ 등의 의미로도 이해하고 있다.

‘罷’는 ‘吧’와 같은 뜻으로, 이 시기 교재에서는 모두 ‘罷’로 나타난다. 《漢語獨學》의 부록 색인에서 ‘罷’는 미래와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漢語大成》에서도 ‘罷’는 조사며 미래와 명령에 통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支那語文典》에서도 ‘罷’를 특수한 미래형으로 설명하면서 不定의 의미로 현재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 맨 마지막에 조사 ‘罷’를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당시 중국어 교재의 저자들이 동태조사 뿐 아니라, 조동사, 어기사, 동사의 중첩형식, 부사구 등이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교재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일제강점기 시간범주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당시는 서양 학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서구식 교육이 활발하게 진

21) 원문에는 ‘同一 動辭字 中間에 數辭一字를 入호야 現在의 意를 表함에는’로 적혀있다. 같은 책, 352쪽.

22) 宮錦舒, 《最新言文一致支那語文典》, 文求堂書店, 1912, 148쪽.

행되어, 신식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문법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였다. 그래서 저자들은 기존에 학습했던 영어 문법 혹은 일본어의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중국어의 시간 개념을 해석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漢語獨學》과 《支那語集成》의 저자 宋憲奭의 경우는 명륜당에 위치한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인 중앙학림에서 국어교사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문법 교재를 여러 차례 편찬 간행한 바 있다²³⁾. 또 《支那語大海》의 저자 문세영의 경우도 《조선어사전》을 출간할 정도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래서 이전의 한국에서 발행된 중국어 학습서와 달리 일제강점기 교재에는 저자가 문법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교재에서 위의 내용과 같이 중국어의 시제와 상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저자들이 시제 혹은 상의 개념을 문법용어를 사용하고 설명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 발행된 국문문법서 가운데도 시제나 상에 대하여 언급한 저작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어 문법의 경우 최광옥(1908)의 《대한문전》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비교적 본격적으로 시제에 대해 언급한 저작은 주시경(1910)의 《국어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시경(1910)은 과거를 ‘간 때’, 현재를 ‘이때’ 미래를 ‘올 때’로 언급하면서, 시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삼분법을 주장했다. 박승빈(1935)도 주시경과 같이 시제를 삼분하고 아울러 ‘진행상’ 혹은 ‘완료상’을 언급했지만, 그 둘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1937년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와서 비로소 시제와 상을 구분하여, 시제는 이 적(현재), 지난 적(과거), 올 적(미래)으로 세분하고, 상에 속하는 것으로 끝남(완료)과 나아감(진행)을 두었다.²⁴⁾

한국에서 실시된 일본어 문법 교육을 살펴보면, 한국문법 보다 조금 앞

23) 宋憲奭은《初等自解日語文法》(1909), 《精選日韓語文自通》(1909), 《增訂改版中等日語文法》(1913), 《自習完璧支那語集成》(1921) 등 어학, 문법 교재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교재들은 초기 외국어 교재 중 매우 중요한 교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희, 《마지막 서적 중개상 송신용 연구》, 보고서, 2009, 287쪽 인용.

24) 이선영, 앞의 논문, 7쪽 인용.

선 시기에 시간범주와 관련된 문법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어 학습서의 시제 분류부분을 살펴보면 당시의 중국어 교재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韓中瑄(2007)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어 학습서에서 시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어 교재의 저자이기도 한 宋憲奭의 일본어 교재 《初等自解日本文典》(1909: 55-60) 동사의 항목을 살펴보면, 시제의 체계를 現在, 過去, 未來, 小過去, 中過去, 大過去 등으로 나누었고, 小過去の 경우 經過去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교재 《中等日文法》(1911)에서는 미래조동사, 과거조동사, 과거추량조동사, 완료조동사,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현재완료추량, 과거완료추량, 미래완료추량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차이로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나 삼분법적 체계와 추량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현대한어어법을 다룬 저작을 黎錦熙(1924)의 《新著國語文法》로 보고 있다.²⁵⁾ 黎錦熙(1924)는 영어의 어법과의 비교를 통해 “뒤에 부착하는 조동사(예를 들어 了, 着, 起來 등)”는 “동작의 완성 혹은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 어미”이며 동사의 시제(tense)의 변화는 시간 부사와 조동사의 작용에 의지한다.”²⁶⁾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呂叔湘(1942), 王力(1943), 高名凱(1948) 등에 의해 시제 혹은 시간구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王力(1943)은 중국어는 “일의 경과 시간의 길고 짧음과 시작했는지 혹은 완성했는지의 여부에 치중하지, 그것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시제(時)’는 없고 ‘相(體)’이 있다”고 여겼다.²⁷⁾ 시기를 살펴보면 중국학자들이 중국어의 시간 범주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언급된 내용이나 용어를 살펴보아도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용어와

25) 邵敬敏, 《漢語語法學史稿》, 商務印書館, 2006, 77쪽.

26)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24, 2000년도판, 109-110쪽.

27) 金昌吉·張小蔭, <現代漢語時體研究述評>, 《漢語學習》, 4, 1998. 32쪽.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過’와 같은 일부어휘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크므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저자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중국어 회화서 혹은 문법서를 살펴보면, 교재의 내용이나 어휘 혹은 문법 설명에서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와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제나 상과 관련된 분류나 설명에 있어서는 교재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몇몇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발행된 중국어 문법서 혹은 회화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正元年(1912년) 東京에서 발행된 《支那語文典》(146~156쪽)에서는 동사의 활용에서 우선 시제를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으로 삼분하고 있다. 미래형의 표현에는 ‘要’를 동사 앞에 두어 설명하고 미래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罷’를 현재 혹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助詞로 설명했다.

현재형은 ‘着’을 동사 뒤에 붙이며, 과거형은 보통의 경우는 동사 뒤에 ‘了’를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형에서 大過去의 경우 ‘過’를 붙이고, 半過去의 표현은 ‘來着’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939년 東京에 발행된 《初等支那語教本》에서는 구문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제시하면서 시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了’의 경우는 과거 및 완료를 나타낸다는 설명과 함께 미래완료의 용법, 현재 완료의 용법 등을 설명하고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六十一 了

- (一) 他把這本書拿走了
- (二) 爾把這本書拿了走罷

-
- (一) 了...過去及完了を表はす
(과거 및 완료를 나타낸다.)

(二) ……前述(一)の「拿走了」と「拿了走」の區別を説明すれば「拿了走」は過去を表はし「拿走了」は殆んど完了即ち動作の完了を表はす動作が完了するや同時に乃至は完成して然る上「持つつ行く」の意である、(二)の例は未来完了を表はす別な文句がないから最も解しにくい。……
(……전술한 (一)의 「拿走了」와 「拿了走」의 구별을 설명하면 「拿走了」는 과거를 나타내고, 「拿了走」는 거의 대부분 완료 즉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동작이 완료함과 동시에 또는 그 위에 완료 후 가지고 간다는 뜻이다. (二)의 예는 미래완료를 나타내는 다른 문구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시제와 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별 구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어서 일반 회화서에서도 문법적 접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過'의 경우는 現在完了의 경험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고, '着'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着'과 함께 나타나는 어기사 '哪'는 현재진행형을 나타내는 문미조사로 '着'을 생략하고 '哪'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着'의 의미설명에 있어 동작의 정지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²⁸⁾

좀 더 늦은 시기인 昭和17年(1942년) 동경에서 발행된 《支那語自在》에서도 일반적 과거형으로 '동사+了'가 사용된 구문이 제시되었고, 시간사가 첨가된 구문의 과거의미를 제시하였으며,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에 '過'를 사용하는 구문을 제시하였다. 또 완료형을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로 나눈다고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²⁹⁾

일본은 당시 중국대륙 침략의 야욕으로 중국어에 대한 상당한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졌던 시기여서 많은 수의 교재가 존재하고 있다. 국내 대학 도서관을 통해 이들 교재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과 같이 어휘와 구문에 대하여 문법적인 설명이 상세하게 설명

28) 76-77쪽, 126-127쪽.

29) 345-351쪽.

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시간범주에 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삼분법적 시제관을 가지고 있고, 완료, 진행, 경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교재에 나타나는 예문 역시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일제강점기 한국의 저자들이 어느 정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나오는 말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중국어의 시간 개념은 대체적으로 시제적 개념과 상적 개념이 혼재되어 설명된다. 한국어에서 익숙한 시간 개념을 통해 ‘了’ 혹은 ‘過’ 등을 완료나 경험 등으로 설명하고, 시간사 혹은 시간 부사가 함께 나타나는 구문에서는 시제와 함께 언급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교재에 나타나는 시간 범주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일률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재 편찬자들이 이미 시간 범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문법적 설명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전통문법시기에 속했던 저자들은 대개 시제를 일원적인 체계로 이해하고 있었고, 서구의 시제 체계와 같이 현재, 과거, 미래로 삼분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시제와 상의 개념들을 서로 연결되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저자들은 전문 문법서도 아닌 회화 교재를 통해 시제나 상의 개념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초기보다 후기의 교재에서 이해가 깊어진 점은 당시 이들이 중국어 시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탐색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문법 교육을 받았고, 이를 어떻게 중국어 문법에 응용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 박재연·김아영 편, 《漢語會話書》, 學古房, 2009.
- 권재선, 《국어학 발전사》, 서울고시사, 1987.
- 宋憲奭, 《中等日文法》, 唯一書館, 1911, 《역대한국문법대계》, 답출판사, 1977.
- 萬波, <現代漢語體範疇研究述評>, 《江西師範大學學報》, 1996年 第29卷 第1期.
- 김중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중국어 문법》, 박이정, 2008.
- 宮錦舒, 《最新言文一致支那語文典》, 文求堂書店, 1912.
- 金松圭, 《內鮮滿最速成 中國語自通》, 南昌書館, 1939.
- 朴在淵·金雅瑛 校注, 《內鮮滿最速成 中國語自通》,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10.
- 陳前瑞, <“來着”的發展與主觀化>, 《中國語文》 4, 2005.
- 陳前瑞, <“來着”補論>, 《漢語學習》 1, 2006.
- 申美變, <日帝强占期 中國語 教材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學》 57: 6, 2011.
- 이선영, <한국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시제'인식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승빈, 《조선어학강의요지》, 조선어학연구회, 1931, 《역대한국문법대계》, 답출판사, 1977.
- 이민희, 《마지막 서적 중개상 송신용 연구》, 보고서, 2009.
- 신윤희, <일제말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중국어교재 연구: 『(北京宮語) 支那語大海』와 『速成自習 標集 支那語教程』의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韓中瑄, <한국 개화기 일본어 문법용어 연구>, 《일본학연구》 22: 2007.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1924, 商務印書館, 2000年.

金昌吉·張小蔭, <現代漢語時體研究述評>, 《漢語學習》, 4, 1998.

表文化, 《初等支那語教本》, タイムス出版社, 1939.

牛窪愛之進·蕭鴻麟, 《支那語自在》, 富士書店, 1942.

<中文提要>

对外国人来说, 汉语的时间语法范畴是很难理解的。作为从事汉语教学工作, 总是要考虑怎样教好学生时间范畴问题。本文主要研究考察日帝强占时期汉语教材的编者们对时间语法范畴持有的一般认识。详细内容如下: 首先, 《汉语独学》一书, 把动词分成‘现在’、‘过去’、‘经过事’、‘未來’、‘未來推量’等, 并举例说明具体的意义。与《汉语独学》相同, 《支那语大海》一本里也使用了‘现在’、‘过去’、‘未來’、‘未來推量’等语法概念, 并且举出相同的例子加以说明, 但在《汉语独学》一书中, 属于‘经过事’的“过”被说成‘过去’时态, 而且已经不再使用‘经过事’的概念。《汉语大成》中, 时间语法范畴是非常简单, 而很片面, 此书通过简单的语法说明, 体现了一些对‘时体’的认识。《支那语集成》一书中, 包含了比较完整的时体概念, 该书详细说明了‘了’、‘着’、‘過’、‘来着’等的概念, 尤其是著者把‘了’归结成“完了”和“终止”的标志, 这就说明著者已经有了“体”的概念, 而且认识到了‘了’不再有‘过去’的含义。虽然日帝强占时期汉语教材中对时间语法范畴的认识比较单纯、片面, 但是著者们已经开始考虑到汉语的时体概念, 并在初级汉语会话书中附有说明和阐述。日帝强占时期是属于传统文法时期, 所以著者们普遍认为汉语有现在、过去、未來等三个时态, 而且他们还承认除了“时”以外, 还有“体”的概念。虽然他们还分不清两者的区别, 但是与当时中国、韩国、日本等国的语法研究情况相比, 可谓非同小可。

Key Words : 日帝強占時期(Japanese colonial period), 漢語教材(Chinese textbook), 時制(tense), 體(aspect), 過去(past), 現在(present), 未來(future)

